

화평,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June 07

• 이사야 26:1-4; 빌립보서 4:4-7

‘참된 평화’를 주제로 두 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한 화가는 아주 고요한 호수가 계곡의 안정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는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를 그렸는데, 폭포 옆 나무 위의 등지에는 폭포의 우렁찬 소리에도 불구하고 새 새끼들이 고요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그림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이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란함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화평은 조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주를 신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사 26:3-4).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고 꼭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거짓 화평’을 경계해야 합니다. 화평은 평화의 수고를 통해 옵니다. 고요한 산속뿐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맷어야 할 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 한복판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눅 23:46). 한없이 작은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십자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삼상 25:29).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내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 동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나는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 ① 나의 신앙과 삶에 거짓 화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 ② 하나님께 맡기며 평강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